金사과 이어 배추·양배추 값 오른다

양배추 작황부진에 1포기 6760원…2주 전보다 20% 1년 새 60% ↑
배추도 지난 2월 지속된 강우에 저장량·생산량 감소…가격 오름 전망
정부, 오는 5월부터 당근·마른김·코코아두 등 6종 할당관세 면제 결정

배추와 양배추 등 엽근채소 가격이 2주 만에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406호'에 따르면 양배추(1포기) 가격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지난 22일 기준 6760원으로 2주 전(6000원)과 전년(4230원) 대비 각각 760원(20.6%), 2530원(60.8%) 올랐다.

지난 2월 양배추 가격이 1포기 당 3500원 선에 형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양배추가 본격적인 생육기에 접어드는 지난 2월 주산지를 중심으로 잦은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생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양배추 산지 중 가구당 평균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영암군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양배추 재배지인 무안군, 해남군 등에 지난 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20%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양배추 재배를 위한 기상 여건이 악화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2% 감소하면서 점차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추 역시 올해 초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비교적 양호했던 전년보다 60%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1포기)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양동시장 소매가가 6760원으로, 2주전(6000원)보다 760원(12.7%) 올랐고 전년(4230원)에 견줘서는 59.8% 폭등했다.

이는 지난 2월 하순까지 지속된 강우로 저장량이 감소한 데 이어, 겨울 배추에 이어 시중에 공급되며 배추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시설봄배추 생산량 역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4년 엽근채소 4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배추는 지난 2월 잦은 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다습한 기후조건에 놓이면서 미입고물량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저장물량을 조기 출하하면서 저장량마저 감소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달 배추 출하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7%, 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는 비교적 기상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설봄배추 생산량 역시 이달 기준 2만9955 t 으로 전년(3만3299 t)보다 10% 적고, 평년(4만2569 t)에 견줘서는 29.6% 감소하면서 배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 실시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과채류 가격은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1달여만에 대부분 항목이 15% 이상 감소하며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년에 비하면 여전히 작게는 20% 크게는 60%까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 6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대표 브랜드쌀 '빛찬들' 독일 베를린 식탁 오른다

광주통합RPC, 18t 선적식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쌀 '빛찬들'이 독일 수출길에 올랐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6일 광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 사업법인(광주통합RPC)이 18t 분량의 빛찬들 선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 광주 내 7개 지역 농협 조합장, NH농협무역 허정구 전무이사, 이선학 대표이사,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 남택송 과장 등이 참석했다.

선적된 '빛찬들 궁답쌀' 18t은 독일 베를린로 보내진다.

이번 빛찬들 해외 수출은 지난해 호주·뉴질랜드에 이은 두 번째로, 'Asia H&S GmbH' 유한책임회사 현지 마켓과 긴밀한 협업 끝에 성사됐다.

독일로 간 빛찬들은 베를린 소비자에게 광주 쌀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통합RPC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으로의 판로 확보에 나서는 한편, 추가 수출 물량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해 광주시 대표 브랜드 쌀 '빛찬들'의 국제적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이현호 본부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 및 쌀값 하락에 대응해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수출에 애써주신 광주통합RPC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협광주본부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광주 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만성적 쌀 수급 불균형 대안 찾아라

국민 식생활 변화 맞춘 개발 주문…적정량 생산 필요성도

우리 농업의 핵심인 쌀농사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최근에는 그 도가 넘어 유통체계 붕괴에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만성적 쌀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이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자 30여 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약 60㎏으로 쌀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농업 붕괴로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쌀가공식품산업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요약하면 쌀 소비 감소는 육류 소비 증가 등 국민의 변화된 식생활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변화한 식생활에 맞춰 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는데 관계기관 모두가 힘쓸 때라는 것이다.

이중 보리나 밀과 같은 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과 관련한 논의는 새겨볼 만하다. 2017~2021년 '글루텐 프리(gluten free·글루텐이 없는)' 식품시장이 연평균 7.7% 성장한 가운데 일본은 글루텐 프리 식품 인증을 활용해 쌀 제품 가치를 홍보하고 해외 마케팅 강화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글루텐 프리를 활용한 쌀가공식품마케팅이 주목받는데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원료인 쌀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쌀이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쌀이 비만을 부른다'는 등 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쌀 소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겨와 쌀눈에 상당한 영양소가 있고 쌀이 전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많이 모른다"라면서 "또 국내 쌀과 해외 쌀 중 무엇이 더 좋은지, 글루텐 프리·가루쌀·보관법 등에 따라 칼로리나 혈당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 소비 확대와 함께 적정 생산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나왔는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면적직불금은 논밭이 같지만, 비진흥지역의 경우 밭에 대한 단가가 논보다 면적에 따라 1㏊당 44만~62만원 적은 상황인데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단가 차이를 없애든지 밭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기보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 조정을 이뤄야 한다는 제안 역시 시행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동안 만성적 쌀 수급 불균형문제와 관련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행과 효율 측면에서는 다소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책 간담회가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쌀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bigkim@kwangju.co.kr

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큰 지장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구, 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식품 창업기업 16곳 신속 성장 지원

농식품부, 최대 5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감자빵 제조업체 '밭', 전통주 업체 '복순도가' 등 16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사업은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또 투자 상담과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